영원한 근본 못 보는 것
무명 굴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



그림 · 최주현

☞ 25면에서 계속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절차가 다 잘되어 있어야 외부의 절차가 다 잘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면 새지 않느냐는 속담의 말도 있죠? 그러니 내 안에 들은 모든 생명체들의 의식이 바로 내 주인이자 내 하인이자, 그리고 내 육체가 또 그네들의 주인이자 바로 심부름꾼이며 관리인이자 집합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거지 개별적인 혼자가 없어요. 모두들 살아나가는데 내가 했고, 내가 살고, 이거는 내거라고 하는 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것이 없다면 바로 욕심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벌어놨다 하면은 그게 조금만 없어져도 그냥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더불어 내 것이다, 더불어 한마음이다 한다면 가지고 다녀도 무겁지도 않고요, 도둑맞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하하하. 또 생짜배기로 돈이 나가지도 않을 거구요. 전부 자기 돈이라고 그러는데, 더불어 같이 모두의 돈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짜배기로 나갑니까? 그러나 내 것이라고 한다면 무슨 핑계를 대고라도 그 돈이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이 허심탄회하게 질문들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는 동시에 세세한 것도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모두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하게 만들어 놨고, 전부 상대를 놓고 참, 그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상대를 놓고 빌고 기도하게끔 만들어 놓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자기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그 사실을 안다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텐데 말입니다. 정말 집 안에 들어가서도 말을 못할 일이 생기고,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이 자기 혼자만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남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는 모든 일이 전부 혼자서 먼 산 보고 울어야만 하고, 자기 혼자서 새겨야 하고, 참아야 하는 일들이 살다보면 건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올 때도 혼자 왔기 때문에 갈 때도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르쳐 주는 건, 혼자 온 것이 없기 때문에 혼자 갈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연어가 알을 낳을 때는 다시 자기가 태어난 자리로 와서 낳고 자기 몸을 벗는다고 얘기를 했듯이,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에 다시 와서 자기를 다시 형성시켜 놓고 자기는 그냥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지, 우리가 뭐 죽었다 살았다 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저녁이면 잠자고 아침이면 깨는 거와 같기 때문입니다.

▲질문자1: 스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견성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달마조사 혈맥론(血脈論)에 의하면은, 부처를 찾고자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염불을 하거나 또 경을 외우거나 계율을 지켜도 마음의 발전이 없으면 별로 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 경을 외우면은 총명을 얻고, 계율을 지키면은 천상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고, 보시를 하면 우리가 복된 과보를 받되 부처는 될 수가 없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수행하는 불자들이 반드시 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고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어서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단순히 그 작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걸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주인이 마음이고, 또 저를 지금까지 형성시켜온 것이 그 마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고 수행하는 자체가 견성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어떠한 다른 경계가 있어서 말씀을 하신 건지 그 점이 상당히 궁금해서 스님께 가르침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여러분이 그렇게 이론으로 잘 알려고 하면은 오히려 공부를 못 하죠. 잘 아는 것이 앞을 막아서요. 그렇다고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질문자1: 글쎄, 아리송해서요.

▲스님: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마음 공부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천차만별의 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작용하는 나를 누가 형성시켰나 하는 건데, 바로 자기란 놈이 형성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질문자1: 예.

스님: 자기란 놈이 형성시켰으니까, 나를 형성시킨 고 놈이 바로 부가 되는 겁니다. 참자기가 되고, 그런 거니까 형성된 자(子)의 마음은 바로 부의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나무는 반드시 제 뿌리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는 제 뿌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미쳐 자기 뿌리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흙이 덮여서 나무가 제 뿌리를 못 보는 것을 무명이 덮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영원한 근본 자기 뿌리를 못 보는 것은, 바로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모르고 그걸 떠나서 진실하게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고 그 나온 자리에다가, 지금 현실의 모든 일체 작용이 나오는 자리에다가 모든 걸 되맡겨 놓으면, 입력이 된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해서 맡겨놓으면은 앞서 입력한 내용은 없어지고 새 내용으로 다시 대치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일체를 모두 그 자리를 믿고 맡겨서 재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질문자1: 스님, 그러면은 제가 선원에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느낀 점과 체험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원에 나오기 시작한 지가 약 5년이 되거든요. 스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주인공을 믿고 오로지 그 자리에다 맡기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스님 법문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참 공부가 안 되는 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욕심도 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음란한 생각도 들어가고, 어리석은 마음도 나오고 이래서 처음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공부는 내가 사람 몸 받았을 때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는 그 생각에 의해서 한번 꾸준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그 생각이 점점 적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상당히, 말하자면 편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 년여 동안 선원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치료를 위해서 치과에 몇 번을 갔지만 몸이 아프거나 그래가지고 병원이나 약국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는데 제가 그 중간에 선원에 나오기 시작해서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제 엉덩이에 종기가 밤알 만한 게 아마 10개 이상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공부시키는 기회구나 하고서 밀어붙였어요. '주인공! 당신 몸이니까 당신이 낫게 해야지.' 하고 병원에도 안 가고, 그전 같았으면 아마 병원에 가서 마이신을 맞는다, 뭐 한다 난리를 쳤을 텐데, 그 자리에다 맡겨놓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종기가 그렇게 크면서도 아픔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십여 일을 지나더니 그냥 스스로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 그 뒤로는 몸이 어디 좀 아프거나 하면은 그냥 주인공 자리에다가 맡기면은 스스로 낫기 때문에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공부가 얼마나 굳건한 신심으로 진실히 믿고 맡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절실히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습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도 가끔 삼독심(三毒心)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내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요. 그럴 때는 사실 참 저 혼자 저 자신을 들아보면서, '5년 동안 네가 뭘 공부했느냐?' 이런 자책감도 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주인공 자리에 이렇게 관합니다. '오 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 그때의 너하고 지금의 너하고 얼마나 다르냐? 그러면 내가 공부가 된 게 아니냐?'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하면서 제 몸을 밝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누구의 말대로 소 고삐를 올바로 잡고 끌고 가는 것인지 한번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스님: 올바르게 이끌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광을 하고 습성이 나올 때에 왜 가슬립니까? 그냥 한번 비죽이 웃어보세요. 어떠한 생각이 나오든지 거기서 나오는 줄 알면은 그냥 웃어버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도 속지 않고 그것도 주인공자리에서, 화해서 모습을 바꿔가지고 자꾸 진드기를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견이 생기죠. 그런 거를 가지고 거기에 끄달리면 어떡합니까? 끄달리면 속는 거죠.

동짓날 팥죽 쑤는 얘기를 가끔 예를 들어 말하는데, 팥죽 솥에서 팥죽이 끓는데 방울방울이 따로따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한솥의 죽방울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죽방울이 한 죽 솥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면 비죽이 웃음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걱정될 게 하나도 없죠, 뭐!

▲질문자1: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1월 7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든 거기서 나오는 줄 알면 그냥 웃어버릴 수 있고 속지 않아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책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五術之中帝王」이요,「神示」라고도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그 일이 잘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될 것인지, 이사하면 언제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男二女 관계인지 二男一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뗄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시식 굿 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찾을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을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같것인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불 것인지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임 신수비결(身數泌訣)

찾아온 시간이나 띠만 알면 해당국수가 나타나 그 날 그 국수를 펼치면, 1년의 운세와 월별 길흉과 식구들의 특징사항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신수도 육임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값 : 250,000원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그날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 선거 구제 취직 승진 매매 입신 가출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바인더차트 每一式
■ 활인전문천역자용 (부록 · 설명비디오 포함)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W1,500,000 (휴대용)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W1,300,000 (좌정용)
● 효사 육임강의록 W300,000
● 효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 28개) W900,0000
● 강의신청「육임학당효사숙」02-998-8683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02-2203-480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